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엡3:20~21)

코로나19와 폭우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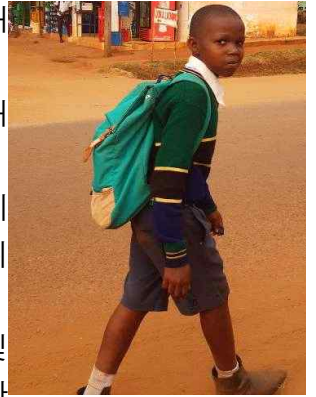
탄자니아의 코로나19 상황

탄자니아의 코로나19 는 5월 초, 확진자 509명, 사망자 21명, 발표 후,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update가 없습니다.

주변의 국가들, 예를 들면, 케냐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로나19 상황으로 판단해볼 때, 이곳만 코로나19 청정국가라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현 마쿠프리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대통령선거가 10월 25일 있을 예정이고, 경제를 제 1 순위로 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며, 지금까지 탄자니아는 완전 봉쇄와 통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3월 초부터 모든 학교들이 휴교를 했었는데, 6월 초에 대학교 및 대학이 먼저 개학을 했으며, 6월 말에는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물론 학교를 열기 전, 방역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지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아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물이 부족하여 손 씻기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로고로 지역의 학교 내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예가 겹으로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식량부족으로 인한 약탈이나, 폭동과 같은 어려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올해 너무 많은 비로 인하여, 주식인 옥수수 수확(예년의 30~40%)이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빈곤층이나,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사역에 진척 상황

지난번 기도편지에 언급했던 마스크사역은, 가까이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현지 교회들과 지역사회에 전달하시기 위하여 주문하신 2000개의 마스크를, 동네 현지인 미싱사들이 제작하도록 기술적으로 도왔습니다. 또한, 약 2000개의 마스크를 더 만들어서, 지역 병원들과 카상가 지역의 디라교회, 모로고로 시내의 붕고교회, 카상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조리원 및 이웃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의료진을 위하여 얼굴가리개(Face Shield)를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지역의 두 개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이 병원들에서 얼굴가리개 와 마스크를 더 요구해서, 얼굴가리개 200개를 마련해 놓았고, 마스크 약 500개를 만들어, 준비되었음을 연락했는데,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탄자니아에서는 코로나 19가 끝났다고 발표를 해서 그런지? 답답함으로,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10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update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앞을 나가거나, 주변을 산책하거나, 어디를 가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탄자니아의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하여 투명하게 잘 관리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단(GMS/KCM)선교회 총회 참석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7월 21~23일에, 교단선교회(GMS/KCM) 총회가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GMS선교사는 약 20여 Unit이 있습니다. 현지 법인(KCM)을 만들어서 약 25년 사역(신학교사역, 학교사역, 교회 개척사역, 결손아동사역, 직업훈련사역 등등)을 이어왔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외국단체(예를 들면, 선교단체나 비정부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을 표방하면서, 그간 외국인에게 부여하던 노동허가나 체류비자를 2015년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법을 약 2년 전부터 강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신청 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더 많은 종류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적지 않은 선교사들에게 허

가가 보류되거나, 거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교지를 이미 옮겼거나 옮기는 것을 고려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박 3일 간 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문제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회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다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학교 강의사역과 말씀사역

코로나19로 인하여 탄자니아의 모든 학교가 3월 초부터 휴교를 하였기에, 지난 학기에는 칼빈신학교도 문을 닫았었는데, 이번 9월부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라경우선교사는 이번 학기에는 12월 중 선교학을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의를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지어인 스와힐리어 설교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기거하는 요엘이에게 거의 일대일 양육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엘이는 성경필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사는 모로고로 지역의 우루구루산 기슭에 사는 농민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거의 매일 아침에 저희 집을 방문하는데, 그들에게 그림성경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그들의 가족, 특히 어린 자녀들, 더 나아가 민족들에게 전달되기 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병원에서 일하는 두 자녀를 위해

첫째 딸, 해인은 현재 스코틀랜드 아버딘에서 전문의과정 3년차를 하고 있고, 둘째 딸, 정인이는 shetland 섬의 병원에서 6개월 간 의료사역을 잘 마치고, 아버딘으로 돌아와서, 언니와 함께 지내며, 수련의과정 2년차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의료사역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아직도 의학을 배우는 단계라 계속 공부하며, 때때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신앙생활과 의학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기독의사들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돕는 동역자님들의 가정, 직장, 사역,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0.8.12. 탄자니아 모로고로에서 라경우/길미정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코로나19 환경에도 건강을 잘 지켜 주시며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길 위해서
2. 지혜롭게 현지인들을 돕고, 말씀을 전할 수 있길 위해서
3. 탄자니아의 정부, 대통령선거(10월 25일)와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길 위해서
4. 영국에 있는 해인 전문의과정, 정인 수련의과정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5. 안식년을 계획 중인데 (12월 중순), 이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인도해주시길 위해서

